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 현장 점검 나서

조지훈 전주시장, 진기들 배수펌프장·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방문

조지훈 전주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해예방시설과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조 시장은 21일 건설안전국장과 덕진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송천2동장 등 관계 부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핵심 재해예방시설인 '진기들 배수펌프장'과 상습 침수지역인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맞아 시장이 직접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단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덕진구 전미동 소재 진기들 배수펌프장은 저류용량 약 4만 톤의 유수지와 분당 1150톤의 배수가 가능한 6대의 펌프 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요 방재시설이다. 유수지의 물은 평시에는 전주천으로 자연 방류되나, 집중호우시 전주천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을 닫고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전주천과 민경강으로 강제 배수하



조지훈 전주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해예방시설과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게 된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당시 농업부산물 부유물 협착으로 인한 배수 지연으로 진기마을 일원의 침수가 우려되어 주민 40여명이 대피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추진 중인 침수 방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현재 진기마을 침수 재발 방

지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을 확보해 배수로 제방 차수벽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개선 공사'를 함께 추진 중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은 매년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예곡시터·송천동 일원과 전라선 철도 구간의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총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되는 월평지구 정비사업은 △송천동·예곡시터 일원 침수 방지를 위한 고지배수로(2.3km) 신설(2029년 2월 완료 예정) △월평마을 고내배수로 유역 배수펌프장 설치(2030년 12월 완료 예정) 등을 골자로 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역의 침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당시 전라선 철도 구간 침수로 약 4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던 만큼 시는 침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기대책으로 톤 마대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의 호우 예방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에도 사업 완료 전까지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유기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폭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집중호우시 즉시 조치 가능한 현장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정리수납 봉사로 주거 환경 개선

전주시주거복지센터·금암노인복지관,주거취약노인가구서진행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최재훈)은 21일 완산구 교동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주시가 주거 취약노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금암노인복지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처음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이날 봉사에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희망홀씨 정리수납 봉사단'과 금암노인복지관의 '홀케어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인 가구의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봉사단은 이날 대상 가구의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공간 내 위험 요소를 줄여 노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5년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자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정리 수납 전문 이론교육과 봉사활동 실습을 통해 봉사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희망홀씨 정리수납 봉사단'을 운영하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해나간다는 구상이 다.

/이만호 기자

제7회 전주시 노인일자리 정책포럼 열려

525명 시니어 창업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시니어 맞춤형 창업정책 방향 제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윤자)는 21일 전주시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시니어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전주시 노인일자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해 전주시 56세 이상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시니어 창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시니어 창업을 주제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차원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 정책요구를 분석해 전주시 맞춤형 창업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이종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니어 창업 수요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시니



조지훈 전주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해예방시설과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어의 창업 의향과 희망 업종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분석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좌장으로 전주시와 전북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들은 시니어 창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지원 체계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 모델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포럼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책 조사의 주제로 참여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포럼을 통해 실제 정책과제로 연결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보건소, 청소년 HPV 무료 예방접종 독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각종 암 예방을 위해 '사립유두종 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접종하면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여성 중심의 지원 대상이 2014년생 12세 남아까지 확대되면서 성별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2008년~2014년생 여성 청소년 △1999년~2007년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2014년 출생한 남성 청소년이다. 이 가운데 2013~2014년생 여성 청소년의 경우 HPV 예방접종과 함께 건강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여름철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집중 방역

전주시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여름철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집중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경보와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병원체 검사 결과 음성)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방역기동반(5명)과 동방역반(39명), 초미립 연무소독 차량반(7대)을 운영하며 하천변과 공원,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지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8개소에 설치된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활용해 모기 발생 밀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과학적 방역을 추진하



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빈집 1792개소 주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3024건과 방역 민원 185건을 처리했으며, 모기 발생 저감과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장마 기간 종료 후 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빈집 주변 취약지역도 2회 이상 추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